

교육공동체 나다 주말강좌
2021년 6월

휴먼러니저즘

참가안내

[인권] 고민하는 사람이

★ 어린이의 일상에서 찾은 인권에 대한 질문과 토론

[철학] 이 땅에서 청소년으로 사는 법

★ 답답한 청소년의 일상에서 비상구를 찾다

[철학] 착한 아이의 역습 : 권위주의적 도덕을 넘어서

★ 도덕을 강제 받아 도덕을 믿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질문의 윤리학



교육공동체 나다 주말강좌
“휴머니즘”에 참가하시는 방법

※ 후원회원 가입은 나다 홈페이지 <http://nada.jinbo.net> “후원하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1. 참가신청

참가신청 연락을 해 주세요

〈새로 참가하는 경우〉

전화 또는 나다 홈페이지 “주말강좌-휴머니즘” 게시판에서 신청 글 작성.

▶ 알려주실 것 : ①참가자이름 ②휴대전화 ③신청강좌 ④회원가입여부 ⑤입금자명

〈앞 과정과 연결해 계속 참가하는 경우〉

이전 과정에 이어 계속 참가하시는 분들께 새 과정 참가 여부를 먼저 여쭙고 신규 참가 접수를 시작합니다.

2. 후원회원 가입 선택

후원회원은 주말강좌(휴머니즘)와 방학특강 강좌후원금이 20% 할인됩니다.

▶ 후원회원 : 월 회비 1만 원 이상을 납부. 홈페이지 상단 “후원하기”에서 양식 작성.
(※ 홈페이지에 글을 쓰기 위한 로그인 회원과는 별개입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3. 강좌후원금 납부

[2021년 6월 휴머니즘] 강좌후원금

초등부 인권, 중등부 철학 20만원(10강), 고등부 철학 10만원(5강)

▶ 회원은 80%만 납부

▶ 납부 계좌 : 국민은행 543037-01-005880 교육공동체나다

4. 그 밖에

★ 참고하실 사항

1. 강의는 주 1회, 2시간입니다.
2.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온라인 강좌와 병행하여 진행됩니다.
3. 강좌 기간 초·중등부는 총 2회 휴강이 있습니다.

★ 강좌가 열리는 곳

교육공동체 나다(마포구청역)

서울시 마포구 망원로 7길 44(망원2동 479-28) 3층

인권 초등

고민하는 사람이(10강)

★ 어린이의 일상에서 찾은 인권에 대한 질문과 토론

참가자	12~13세 초등부 청소년
개강	<일요강좌> 6월 13일~8월 29일 오전 10시 30분
오리엔테이션	강좌 첫 참가자에 한해서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첫날 수업이 시작하기 30분 전까지 와주세요!

학교에서 혹은 다른 곳에서 “인권”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라는 뜻의 "인권". 하지만 아직 이 단어가 낯설게만 여겨지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 이유는 이 당연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다면 어린이라고 불리는 우리는 어떨까요. 혹시 자신의 인권을 이야기하고 지켜낼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나요?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이 질문에 대해 '예'보다는 '아니오'라고 대답하는 어린이들이 훨씬 많아요.

여기 우리들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는 각자가 보내고 있는 평범한 일상이에요. 그 속에 숨어있는 인권에 대한 질문들로 이번에도 신나게 수다를 떨어봐요. 질문을 찾아내기는 어렵지 않지만, 찾아내고 나면 우리의 삶은 그전에는 몰랐던 "자유"를 만나게 될 거예요.

.....

1강_ 이유 있는 차별

세상에 차별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지만 마음에 손을 얹고 자신에게 물어본다면 누군가를 차별한 적이 없거나, 차별받은 기억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떤 이유로든 나에게 돌아오는 차별은 마음에 상처를 안겨주곤 합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며 등장한 새 담임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나를 차별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생님은 자신의 행동에 다 이유가 있다고 말하네요. 그렇다면 세상에는 차별받을만한 아이도 존재하는 걸까요?

2강_ 요즘 어린 것들은

‘요즘 어린 것들은 쫓쫓...’이라거나 ‘어린 애가 버릇없이...’하는 어른들의 말을 들 어본 적이 있나요? 난 예의 바른 어린이라서 그런 적이 없다고요? 아, 그렇다면 혹시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당해본 적은 없나요? 난 잘못된 게 없는데 어리다는 이유로 욕을 먹었다든지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사 실이 하나 있어요. 아무리 부당하다고 느끼더라도 어른에 대한 예의는 꼭 지켜야 해 서 여러분이 꼭 참아야 하는 거랍니다~ 아니라고요? 이런 요즘 어린 것들은...!!

3강_ 자람이의 사생활

어른들은 우리의 사생활에 관심이 많아요. 일기장을 검사하기도 하고, 방문을 노크 도 없이 열어보거나, 여러분이 없을 때 책상을 뒤져보기도 하는 걸 보면 말이에요. 가끔 항의도 해보지만, 어른들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말하곤 하죠. 어때요? 솔직히 조금 너무하기는 하지만 어린 여러분을 위한 당연한 관 심일까요, 아니면 명백한 사생활 침해일까요?

4강_ 텅 빈 놀이터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여러분 중 이 노래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 을 거예요. 어른들도 곧잘 따라 흥얼거리는 이 노래의 매력은 놀고 싶은 우리의 속마 음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학교 가랴 학원 가랴 놀 시간도 없고 친구들과 과 만날 시간도 없는 우리. 하나 남은 즐거움인 게임마저 맘껏 하지도 못해요ㅠㅠ. 이제 참지 말고 어른들에게 속 시원히 소리쳐 볼까요? 우리에게 놀 권리, 게임을 할 권리를 보장하라!

5강_ 이상한 학급회의

제 ○회 학급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께 경례~! “너무 청소를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다들 더 열심히 청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업시간에 너무 떠들어서 수 업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떠드는 사람은 교실 뒤로 나가서 서 있기로 합시 다.” 아니 대체 이 학급회의는 누가 하는 걸까요? 대체 누가 진짜로 청소를 하고 싶 은 걸까요? 혹시 학생으로 분장한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6강_ 고릴라 이야기

지수, 뷁, 차은우, 썬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다들 예쁘다, 잘생겼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예요. 세상에는 왜 저렇게 멋진 사람들이 많은 걸까요? 분명 가족들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했는데 화면을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얼굴이 전부 아니고 외모지상주의는 나쁜 거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예쁜 애들이 더 사랑받는 것 같은 기분은 내 착각인 걸까요?

7강_ 너 여자 맞아?

봄 기분을 내느라 산뜻하게 스포츠를 하고 온 날 지나가는 할머니가 “아이고 너 여자애냐 남자애냐.”라고 웃으시는가 하면, 바느질을 꼼꼼히 하는 남자애에게 “남자답지 않게 이런 걸 다 잘하네~” 하는 칭찬(?)이 들려옵니다. 이런 말은 여자와 남자에게 어울리는 일과 행동이 나누어져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은 무엇일까요? 과연 우리와는 잘 어울릴까요?

8강_ 장애 만드는 세상

교실에서 많이 들리는 욕 중에 “장애인”이라는 욕이 있어요. “특수반”이라고 이름 붙은 교실에 가 수업을 듣다가 돌아오는 친구들도 있고, 어른들은 늘 장애가 있는 친구를 열심히 도와줘야 한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왜 “장애인”을 욕으로 쓰고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평생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혹시 장애인은 도움을 요청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9강_ 가난하게 태어난 아이

어른들이야 애들은 돈 같은 거 신경 쓰지 말라지만 애들의 세상도 그렇게 만만하진 않아요. 우리도 돈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피시방에 가도 돈, 핫초코 한 잔 마셔도 돈,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를 먹어도 돈이 필요한걸요. 우리 집에 어느 날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찾아와 내가 사실 부잣집의 잃어버린 아이라고 말하는 상상을 해본 적도 있다가요! 앗, 그런데 반대로 지금보다 훨씬 가난한 집에서 나를 찾아온다면 어떡하죠? 그 집에 도착한 나는 어떤 표정을 짓고 있나요?

10강_ 빵점이 뭐가 나빠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나랑 웃고 떠들던 내 친구가 갑자기 미워 보입니다. 시험이 끝나고 뭘 할지, 뭘 먹을지 이야기를 나눌 때까지만 해도 내 편이었던 친구가 시험지 답을 맞춰보는 순간 적이 되었습니다. 친구와 사이 좋게 지내야 한다는 잔소리를 떠올리지 않더라도 나는 내가 사랑하는 친구와 어떤 기쁨이라도 나누고 싶은데, 점수를 확인할 때만큼은 그게 잘 안 됩니다. 친구를 미워하는 내가 나쁜 걸까요? 아니면 시험을 잘 보지 못한 내가 나쁜 걸까요. 내 친구와 함께 행복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중등 철학

이 땅에서 청소년으로 사는 법(10강)

★ 답답한 청소년의 일상에서 비상구를 찾다

참가자	14~16세 중등부 청소년
개강	<일요강좌> 6월 13일~8월 29일 오후 1시 <일요강좌> 6월 13일~8월 29일 오후 3시 30분
오리엔테이션	강좌 첫 참가자에 한해서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첫 날 수업이 시작하기 30분 전까지 와주세요!

오늘 아침 당신은 어떤 옷을 입고 현관문 바깥을 나섰나요?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이 14살 이후로 가장 많이 입게 되는 옷은 어쩔 수 없이 '교복'일 겁니다. 내 살갓에 가장 가깝게 닿는 옷부터가 이미 내 선택일 수 없다는 사실은 여러모로 이 땅 청소년들의 처지와 닮아있습니다. 아이들은 어쩌다 교복을 입게 된 걸까요? 옷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보다는 '교복'이 상징하는 10대가 떠맡은 어떤 '역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회는 개개인이 집단에 걸맞은 특정한 주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청소년이라는 역할은 여러분 각자의 욕구가 아닌 사회의 요구사항에 따라 세심하게 맞춤 제작된 옷과 같습니다. 마치 교복처럼 말이죠. 유치원을 졸업한 어린이가 초, 중, 고를 교육과정을 거쳐 청소년이 되어간다는 건 사회가 정해준 옷을 강제로 입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청소년으로 사는 일이 때때로 외롭고 괴롭고 갑갑했다면 그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이미 만들어진 틀에 억지로 내 몸을 옥여넣어야만 하는 하루하루가 편안할 수만은 없었을 테니까요.

흔히들 10대는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시기라고 합니다. 나를 찾기 위해서는 우선 나를 '청소년'으로 만들어내는 힘의 정체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키는 대로 무작정 따라가는 삶에서 일단 벗어나야 내가 원하는 나는 무엇인지를 고민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냥 원래 그런 청소년이 아닌, 자기 인생을 살고 싶은 10대들과 함께 청소년으로 자란다는 것의 숨겨진 의미들을 찾아보려 합니다.

이를 위해 이번 강좌에서는 청소년기를 둘러싼 사회의 이모저모를 이론적으로 분석해보고, 10대를 주인공으로 한 성장영화를 통해 앞서 배운 이론을 직접 적용하고 이해해보는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기존의 뻘한 성장법에 익숙해지기보다,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좀 더 새로운 성장의 길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

<이론편>

1강_ 청소년의 탄생 : 10대는 어떻게 청소년이 되었을까

인류의 역사에서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선은 시대별로 사회별로 매우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적용하는 수많은 기준이 존재했으며, 그 기준에 따라 청소년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지금 어른들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떤 시대에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기도 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존재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다양한 역사 속 청소년의 모습을 통해 한 시대와 사회를 읽어낼 수 있다면, 지금 청소년의 위치를 분석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2강_ 너 사춘기니? : 미성숙을 만드는 주문

어른들은 말합니다. ‘원래 그 나이에는 그렇게 사는 거지.’ 그리고 이 짧은 문장 속에는 미성숙하고 불안정한 ‘질풍노도의 시기’이기 때문에 통제와 억압을 숙명처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이 애초에 필요에 따라 다르게 만들어진 개념이라면 ‘원래’라는 규정을 ‘왜’라는 질문으로 되받아칠 수도 있지 않을까요?

3강_ 그런 교육 필요 없어 : 나를 길들이는 장치들

학교마다 ‘미친개’라는 별명이 가진 교사가 학생들을 야구방망이로 체벌하던, 가정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폭력으로 자녀를 훈육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과거의 이야기지요. 지금도 완전하게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런 행동을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이 줄었으니깐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폭력이 줄었을 뿐 청소년을 길들이기 위한 이 사회의 시스템은 훨씬 교묘하게 그리고 더욱 세련된 방식으로 우리를 옴아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는 그 촌촌한 거미줄을 찾아내고 걷어낼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4강_ 급식총들의 오지는 세계 : 청소년 문화에 대한 인문학적 고찰

청소년 문화는 어른들이 그들을 판단하는 주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어른들의 시선에서 청소년 문화는 괴상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것은 청소년 주위에

문화적 울타리를 쳐놓는 것을 합리화하는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청소년 문화는 자신이 처해있는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혹은 엄혹한 현실에서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며, 이는 오히려 그들의 문화보다 훨씬 더 괴상한 현실의 반영이기도 합니다. 청소년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벗어나 10대들의 문화를 인문학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5강_ 권리와 책임의 경계에서 : ‘청소년인권법’과 ‘소년법’을 둘러싼 논쟁들

현재 청소년 관련 법안으로 가장 뜨거운 화두가 되는 것은 ‘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과 ‘소년법’ 개정 혹은 폐지입니다. 전자가 청소년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는 주장이라면, 후자는 청소년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권한 등 여러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할까요. 이를 위해 두 가지 법안에 관한 끝장토론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실전편>

6강_ 『완득이』 : 끈대들을 대하는 방법

집도 가난하고, 공부도 못하고, 왜소증 아버지에, 혼혈아인 완득이. 갖가지 소수자의 모습이 잔뜩 겹쳐진 이 청소년에게 세상은 얼마나 잔인한 곳일까요. 하지만 완득이는 그다지 불행해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세상과 온몸으로 부딪쳐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니까요. 완득이의 삶을 통해 영화는 아니, 정확히는 어른들은 말합니다. 주어진 환경이 열악해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나만 잘 따라오며 노력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현실의 당신도 완득이처럼만 하면 전교 1등 같은 건 어렵지 않은 거... 맞죠?

7강_ 『파수꾼』 : 소통을 가로막는 폭력의 정체 파악하기

늘 붙어 다니던 소년들의 관계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든 관계를 회복하고 싶지만, 자꾸만 꼬여갈 뿐,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너희만 있으면 되는 거였는데 막상 너희는 나만 없으면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친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해를 원할 뿐이었는데 막상 꺼낸 말들은 상대에게 닿지 못합니다. 왜 소년들은 사소한 오해를 풀지 못하고, 서로를 상처 입히고만 마는 걸까요. 답을 찾기 위해선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폭력의 이유를 알아야만 합니다.

8강_ 『주노』 : 감당할 수 없는 크기의 일을 만났을 때

당당하고 버릇없는 소녀 주노는 마음에 드는 친구를 꼬드겨 하룻밤을 보낸 바람에 임신이란 커다란 문제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이를 낳아 입양을 보내기로 마음먹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선택하고 움직이지만, 경험이 적은 그녀는 좌충우돌 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의 진짜 특별함은 그녀의 주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도 내 문제를 대신 겪어주겠다고 나서는 사람들 대신 내가 보내는 이 시간을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노처럼 조금은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9강_ 『견기왕』 : 열심히 살고 싶지 않다면

만복이는 선천적 멀미 증후군으로 그 어떤 탈 것도 거부하는 몸 때문에 하루 2시간을 걸어 학교로 향합니다. 성적도 낮고 되고 싶은 것도 없는 그녀는 걱정도 별로 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하지만 공부도 못하는데 열정마저 없는 만복이를 걱정하던 담임은 걷는 것도 재능이라며 육상부에서 꿈을 찾길 제안합니다. 그런데 육상부 선배는 너처럼 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화를 내고, 만복이도 처음으로 이를 악물고 노력하는데... 그렇게 서게 된 트랙에서 그녀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걷고 있는 걸까?” 열심히 살고 싶지 않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10강_ 『억셉티드』 : 온전히 나를 위한 공부를 하는 법

여기 입시 사회에서 패배한 인생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 12년을 열심히 달렸지만, 대학이라는 골인 지점에 도착하지 못했다는 것을 부모에게 숨기기 위해 시작한 거짓말이 얼레? 진짜 대학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상에서 거부당한 이들이 그곳에서 자신들의 시간을 마음껏 허비하다 보니, 어라? 뭔가를 하게 됩니다. 만약 그들처럼 시간과 공간이 주어진다면, 우리의 상상력은 무엇을 그려 내게 될까요? 지루하지 않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진짜 공부가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지 않을까요? ■

철학 고등

착한 아이의 역습 : 권위주의적 도덕을 넘어서(5강)

★ 도덕을 강제 받아 도덕을 믿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질문의 윤리학

참가자	17~19세 고등부 청소년
개강	<토요강좌> 6월 12일~7월 10일 오후 1시
오리엔테이션	강좌 첫 참가자에 한해서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첫 날 수업이 시작하기 30분 전까지 와주세요!

가끔 청소년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공부를 하니?” 어떤 청소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 드리려고...” 진심이든 아니든 이 대답을 부모가 듣는다면 얼마나 뿌듯해할까요? 참 착한 아이라고, 대부분의 어른들은 그 청소년을 두둔할 것입니다. 하지만 공부도 잘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는 이 엄친아의 존재는 수많은 다른 청소년을 나쁜 아이로 만들고 그 나쁜 청소년들의 부모들을 슬프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청소년을 착하다고만 여길 수는 없는 일이겠지요. 차라리 좋은 대학, 안정된 직장을 위해서라고 대답하는 편이 훨씬 도덕적이지 않을까요? (실제로 절대다수의 청소년들이 가장 ‘편하게’ 선택하는 대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선한 사마리아인들만이 모여 사는 곳은 아닌 이상,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곧 ‘선’이라는 입장을 이기적이라고 욕할 수만은 없는 노릇입니다.

도덕을 다루는 학문인 윤리학을 접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어떤 도덕적 입장에 서서 살아가고 하루에도 몇 번씩 도덕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학생은 단정해야 한다는 세상의 규범에 맞설 것인지 순응할 것인지, 대부분의 중고등학생들은 아침마다 선택을 해야 합니다. 비어있는 노약자석이 피곤한 몸을 유혹할 때도 도덕적 갈등은 여지없이 찾아옵니다. 도덕적 입장에도 정해진 답이 있다는 도덕 교과서에 의지하면 갈등 따위 할 필요가 없을 텐데, 교과서가 말하는 도덕은 아무리 들여다봐도 정이 안깁니다.

여전히 도덕이 강요되는 시대, 유독 정의가 강조되는 시대에 우리는 어떤 도덕적 입장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삶을 엮어매는 도덕이 아니라 다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도덕이란 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여기 도덕에 대한 다소 까칠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 질문들이 여러분 자신의 도덕적 입장을 정해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남의 도덕이 내 삶에 채운 족쇄가 무엇인지는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

1강_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 도덕적인 사람이 더 매력적일까?

어떤 사람에게 매력을 느낄 때, 당신을 가장 끌리게 만드는 것은 외모인가요, 능력인가요, 인품인가요? 확실한 것은 인품이 사람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결국 좋은 성품을 지닌 사람은 친구나 애인을 사귄 때 더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이런 말을 듣습니다. “너무 착하면 손해 본다.” 사람에게 대해 배려하는 태도, 일종의 도덕성이 인품을 의미한다면 도덕적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유리한 걸까요, 불리한 걸까요?

2강_ 가난이 죄인가요? : 약한 사람은 왜 도덕적이기 어려울까?

엄마가 젖줄 때까지 울지 않고 기다리고 갖고 싶은 것을 달라고 떼쓰지 않는 천사 같은 아기를 본 적이 있나요? 가장 미약한 인간들 중 하나인 아기들에게 사람들은 도덕적이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당장 뭐라도 입에 집어넣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사람이 빵집에 진열된 빵을 보았을 때 그 사람에게 도덕적이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때때로 생존보다 소중한 가치로 포장되는 도덕의 맨살은 혹시 고슴도치처럼 돌아난 가시로 가득하지 않을까요?

3강_ 착한 아이 콤플렉스 : 위험한 도덕성, 권위에 대한 복종

여러분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떤 벌을 받고 사나요? 혼나는 정도로 그치나요? 아니면 벌을 서거나 사랑의(?) 매를 맞았던 경험도 있나요? 교사나 부모들은 청소년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체벌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정되기 전 중학교 1학년 도덕 교과서에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 받았던 체벌에 대한 기억이 양심으로 자리 잡는다는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체벌을 많이 당한 사람이 더 착한 사람이 되는 걸까요?

4강_ 악마는 이웃집에 산다 : 악의 평범성

너무너무 화가 나서 주위의 물건들을 부시거나 집어던지고 싶었던 기분이 든 적 있나요?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리고 기억을 구체적으로 떠올릴 수만 있다면 분명 그 분노는 주변의 누군가 때문에 생겨났을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 자신은 착하디 착한 사람인데 왜 주변 사람들은 나를 자극하고 폭발하게 만들까요? 혹시 그들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이 아닐까요?

5강_ 반성문의 딜레마 : 도덕으로부터의 자유

우리는 모두 한 번쯤은 반성문이란 걸 굵적여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반성해서 반성문을 썼다는 사람은 거의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로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반성하는 척만 하는 그런 글들이 전부라면 이런 무의미한 일들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도 반성하지 않는 세계에서 넘쳐나는 반성문과 사과문이 상징하는 것은 진정한 도덕은 글로는 배울 수도 표현할 수도 없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

■교육공동체 나다 2021년 6월 휴머니즘 소개 마침■